

지역 소식통

부안군문화재단, 2022년 '부안다움' 참여자 모집

(재)부안군문화재단(이사장 권익현 이하 재단)이 부안군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문화 예술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만들어 가는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주도 공유원탁회의'를 개최한다.

2022년 주민주도 공유원탁회의는 부안다움을 슬로건으로, 지역 군민이 스스로 문화 주체가 되어 지역의 현안에 대해 생각해보고 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지역 특화형 프로그램이다.

이번 2022년 주민주도 공유원탁회의는 4월부터 6월까지 총 5회로 진행되며 부안군민의 문화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 운영을 통해 참여자들이 함께 공유의제를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만들어 가게 된다. 신청은 3월 18일(금)부터 4월 4일(월)까지 부안군청 홈페이지와 부안군문화재단 블로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농촌협약 추진위 워크숍 개최

고창군이 지난 21일 당촌권역 어울림센터에서 관내 14개 읍·면 주민대표, 중간지원조직과 함께 '농촌협약 생활권 추진위원회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농촌협약 생활권 추진위원회에는 고창군 읍·면 이장단, 중간지원조직, 고창군 컨설팅 전문가, 한국농어촌공사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발별 및 호흡기 증상 점검, 손소독 실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워크숍에서는 명소 IMC(고창군 농촌협약 추진 용역사)의 유명인 실장이 설명자로 나서 농촌협약 제도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 현재 고창군의 농촌협약 진행상황 등을 설명했다. 고창군 대표 주민과 행정, 중간지원조직과 고창군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해 생활권 구성과 전략계획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산불 원천 차단'

영농부산물 무상 파쇄지원... 미세먼지 감축·산불 예방 '기대'

정읍시가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과 산불 발생 방지를 위해 위함요인 사전 차단에 돌입했다.

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무상으로 파쇄작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파쇄작업기는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며 정부 미세먼지 저감과 지역 산불 예방을 위해 고춧대, 과수 잔가지, 깨작목 등의 잔가지를 파쇄할 수 있다.

정읍시 산불 대응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파쇄작업기는 3대다. 시는 파쇄

작업기와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산림 인접 경작지의 영농 파쇄작업을 도울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산림 인접 100m 이내의 전·답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이다. 파쇄작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5월 13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파쇄 가능한 영농부산물은 깻대, 콩대, 고춧대, 나뭇가지(직경 15cm 이하) 등이다. 비닐과 노끈 등 영농폐기물은 파쇄가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제거해 놓아야 한다.

시는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파쇄함으로써 탄소 발생을 억제해 최근 대두가 되는 저탄소 중립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봄철 건조한 날씨에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는 물론, 파쇄한 부산물은 다시 퇴비로 활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산림과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에 대한 계도·단속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소각 적발 시에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이동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침해와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정읍시, 아동학대 예방·안심 보육환경 조성 '앞장'

정읍시가 이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정읍시 아동 인구(만 18세 이하)는 12,860여 명이고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88건으로 2020년 대비 약 3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아동학대 사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정읍시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2명과 아동보호 전담 요원 2명을 배치하는 등 공공화 준비를 마쳤다.

또한, 아동학대 긴급전화(063-536-1391)를 설치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는 한편, 피해 아동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 조치를 위해 정읍아동병원

원을 아동학대 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정읍경찰서와 정읍교육지원청 등과 정보 연계 협의체를 구성해 협업을 통한 합동 조사 체계도 구축하고, 아동복지시설을 피해 아동 보호시설로 지정하는 등 피해 아동의 보호 체계를 신속히 확립했다.

이를 통해 시는 아동들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과 권리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총 188건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 중 80건에 대해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황토 끌고구마 첫 정식지 찾아 재배농가 격려

이주철 고창 부군수, 현장 방문

고창군 이주철 부군수, 고창군의회 예결위원장, 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22일 고창군 무장면 덕림리 일대 고구마 첫 정식현장을 방문해 재배 농가를 격려했다.

첫 정식이 들어가는 고창 고구마는 비닐 멀칭 후 이중타널을 이용한 속성재배 기술로 일반 고구마 재배보다 두 달 정도 일찍 정식을 시작한다.

이번에 조기 출하용으로 정식하고 있는 고창황토배기청정고구마연합농조합법인인 내달 10일까지 약 50ha 면적에 고구마를 정식 할 계획이다.

7월 하순 휴가철에 맞춰 수확 예정인 고구마는 일반적으로 재배한 고구마에 비하여 kg당 2000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판매된다. 또 영농조합은 이마트에 2500톤, 편의점CU에 700톤을 납품하기로 했다.



고창군 이주철 부군수, 고창군의회 예결위원장, 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22일 고창군 무장면 덕림리 일대 고구마 첫 정식현장을 방문해 재배 농가를 격려했다.

전북 최대 명품 끌고구마는 산지인 고창은 약 1200여 농가, 총 1250ha에서 고구마를 재배하고 있다. 특히 게르마늄과 미네랄 등 영양이

풍부한 황토자대에서 자란 고창의 고구마는 당도가 높고 맛이 꿀처럼 달기로 정평이 나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귀리 세트' 공영 홈쇼핑 통해 방송

정읍시가 홈쇼핑 판매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정읍명품귀리사업단이 생산한 명품 귀리의 소비를 촉진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공영홈쇼핑을 통한 방송 판매에 나선다고 밝혔다.

방송은 오는 25일 오후 2시 20분부터 3시 10분까지 공영홈쇼핑에서 '귀리 세트(세트 1kgX10팩, 36,900원)'를 50분간 선보일 예정이다.

귀리는 미국 타임즈에서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해 국내 소비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귀리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귀리 속의 베타글루칸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숙변을 제거하고 장 내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효능이 있어 다



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국내에서는 생소한 곡물이었으나 2004년 정읍명품귀리사업단 손주호 대표와 농촌진흥청 박사들이 재배육종 연구로 국내 최초 재배에 성공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추진

부안군이 관내 농특산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관내 농가 및 단체가 생산한 농특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택배 배송이 이루어졌을 경우 택배 1건당 1,500원을 정액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총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26,667건의 택배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52개 업체가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어 최대 3,141천원을 지원받는다.

군 관계자는 "매년 신청 농가가 증

가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소비시장이 확대되어 택배비 지원사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농가의 유통비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유통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부안 농산물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Advertisement for energy-saving methods. Title: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Methods for saving energy to cool the earth). List of 4 points: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Includes an image of hands holding a globe and a background image of a green landscape.